

2025 제주건축대전 일반공모전

Jeju Architecture Competition 2025

응모요강

2025. 06. 25.

 제주특별자치도

 사단
법인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JEJU

2025 제주건축대전위원회

1. 취지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는 1975년 시작되어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의 전통과 의의를 계승, 「제주건축대전」을 창설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신진 건축가를 발굴함과 동시에 제주의 미래 비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주제

- 제주, 자연의 결을 잇다.

[별첨1. 주제 설명]

3. 응모자격

- 건축과 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
- 1팀 1작품 (1팀은 3인 이내),
단독 또는 공동 응모자는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함.

4. 전체일정

내 용	일 정 (2025년)	비 고
공고 및 참가등록	06.25(수) ~ 07.25(금)	07.25(금) 18:00시까지
1차 작품 접수	9월4일 (목) ~ 9월 5일(금)	이메일(jeju-kia@naver.com) 접수
1차 심사	9월 12일(금)	-
2차 심사	9월 26일(금)	제주대학교(오프라인 진행)
결과 발표	10월 02일(목)	제주건축가협회홈페이지 (www.jejukia.org) 참조
시상식 및 전시회	12월 13일(토) ~ 12월 18일(목)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상세 일정은 제주건축가회 홈페이지(www.jejukia.org) 참조

5. 심사위원

- 사사키 쇼 / Sho Sasaki, INTERMEDIA ARCHITECTS
- 이덕종 / ARC studio

6. 심사

6.1. 심사방식

- 심사는 총 2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선정자만이 다음 심사에 참여 가능.
1) 1차 심사: 2차 심사 대상자 선정(총 지원자의 10% 내외 선발)
2) 2차 심사: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입상자 선정

6.2. 심사기준

- 심사위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에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프로그램을 통한 건축완성 능력
- 서론(issue)부터 해답(Solution)까지의 아이디어를 풀어가는 과정
- 주제 관련 적합성 및 독창성
- 심사위원들은 최종평가 후 심사평을 제출함

7. 참가등록

- 등록기간: 2025년 06월 25일(수) ~ 2025년 7월 25일(금)
- 등록방법: 1) 홈페이지(www.jejukia.org)에서 응모원서 다운로드
2) 응모원서 작성 후 이메일(jeju-kia@naver.com)로 접수
3) 이메일 접수 후 등록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함
- 등록비용: 30,000원 (등록비는 온라인 입금만 가능)
입금계좌: 농협 351-0905-6207-13
예금주: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응모원서 제출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해야 함

8. 작품 접수

- 일 시 : 2025년 9월 4일(목) 09:00부터 ~ 2025년 9월 5일(금) 18:00까지
- 접수처 : (사)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 이메일 : jeju-kia@naver.com

9. 시상

- 대 상 1점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우수상 2점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특 선 4점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입 선 다수 :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상금에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있으며, 한국세법에 따름.

10. 제출요강

10.1. 1차 작품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패널 및 작품설명서
- *패널: 900mm(가로) x 1,800mm(세로) (PDF / 파일크기 30MB 이하)
- *작품설명서: 패널 요약본으로 한국어 1부와 영어 1부, 2가지 모두 제출
(PPT 10매 이내(표지별도), PDF 변환 후 제출 / 파일크기 30MB 이하)
- ※공식언어: 패널 - 한국어 또는 영어 / 작품 설명서 - 한국어와 영어(2가지)

10.2. 작품 제출 방식(이메일 jeju-kia@naver.com 제출)

- *패널 및 작품설명서 파일 모두 제출해야 참가등록 완료자로 인정
- *디지털 파일 제출시 파일명은 성명_본인 작품명으로 제출
(EX.[패널]홍길동_제주탐구 / [작품설명서]홍길동_제주탐구)
- ※패널 및 작품설명서 내 성명, 소속 삽입 금지, 패널 해상도 300dpi 저장

11. 2차 심사 공개 프레젠테이션

11.1. 심사 대상: 1차 심사에서 선정된 2차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평가함

11.2. 심사 방식: Presentation 발표 (한국어)

11.3. 발표 자료: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구성함

11.4. 발표 시간: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한국어)

※팀 작업의 경우, 발표자 1인 지정/ 질의응답시 참여자 전원 참여

12. 공식언어 및 단위

- 공식 언어: 한국어와 영어

- 계량 단위 :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

13. 공통사항 및 규정

- 지원서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공모전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또는 타 공모전에 지원했던 작품이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상(선)을 언제라도 취소함.
- 지원자는 대지 선정 등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자료)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별도의 출처 없이 무단 사용 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작품에는 지원자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표시(학교, 이름 등)도 있어서는 안 됨.
- 작품의 저작권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전시, 작품집, CD 제작 및 기타 홍보 등에 지원자의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주최 측인 제주건축가회로 귀속됨.
- 작품집 제작 및 전시를 위해 본 협회에서 입상(선)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사항은 이메일(jeu-kia@naver.com)을 통해서만 받으며, 답변은 일괄 홈페이지(www.jeukia.org)에 공지함.
- 공모전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들은 제주건축가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수시로 게시되오니 수시로 방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람.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2025년도 제주건축대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름.

14. 시상식 및 전시회

14.1 시상식

-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16:00(예정)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입상작품은 모형제출(작품 전시)/ 모형크기: 900(가로)X600(세로)X600(높이) 이내

※모형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형제출 시 입상 및 상금 수여가 제한됨

14.2 전시회

- 일시 : 2025년 12월 13일(토) ~ 18일(목)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작품 반출은 12월 18일(목) 17:00~18:00, 미반출 작품은 일괄 보관 후 7일 후 폐기

[별첨1. 주제 설명]

제주, 자연의 걸을 짓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여러 작품을 살펴보면 공동체 특유의 삶의 방식을 잘 드러낸다. 거친 자연을 마주하며 일상을 이어온 제주 사람들의 삶은 섬 고유의 풍토와 어우러져 문화적 걸을 형성했다. 최근 국내 외에서 주목받은 OTT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역시 제주를 기반으로 익숙한 일상의 감각과 정서적 유대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동시대적 삶의 관계를 섬세하게 비추며 정서적 공감의 층위를 구성한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는 시간이 쌓인 장소라는 개념과 맞닿아있다. 오랜 세월을 품은 자리일수록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이 쌓여, 관계 맺음의 방식과 그 특유의 감각적 걸을 만들어낸다. 이는 곧, 건축이 다뤄야 할 감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환원되며, 지역의 풍토와 삶의 걸을 이해하고 조율해가는 건축적 태도로 이어진다. 제주건축은 이러한 태도안에서 자연과 인간, 환경과 삶 사이를 매개하고, 지역의 풍토와 일상적 감각을 공간적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실천 형식으로 자리 잡는다. 그 실천은 기후에 순응하고, 재료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삶을 품는 방식 속에서 구체화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통적 방식들이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

제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의 흔적이 맞물려 형성된 섬이다. 거센 파도는 흔적을 지우고, 바람은 시간을 새긴다. 이곳에서 건축은 자연의 일부이며, 시간 속 삶의 기억을 담아내는 매개체가 된다. 이렇듯 제주의 건축은 자연과 긴밀히 얽혀 왔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고민은 본질적 질문이 되어 왔다. 최근에 이르러 건축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 논의의 시의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제주는 이미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강수 양상의 변화, 생물종 분포의 복상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파리기후협약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장기 대응 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본격화되었으며, 건축 또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이에 올해 제주건축대전은 제주의 ‘걸’을 따라 자연과 제주인의 삶과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건축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 중 중요한 하나의 방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건축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제안을 기대한다. 그 제안은 단지 건축의 외형이나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건축이 어떤 태도와 책임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